

| | | | | | |
|---|------------|--|---------------|------|-----|
| 제목 | 국문 | 전국 관청의 금연프로그램 실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 | |
| | 영문 | An overview of smoking cessation programs in nationwide governmental offices and ways to develop such programs. | | | |
| 저자 및 소속 | 국문 | 김태욱 ¹ , 허남욱 ¹ , 오히철 ² , 지선하 ³ 연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¹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² ,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³ | | | |
| | 영문 | Tae-Wook Kim ¹ , Nam-Wook Hur ¹ , Hee-Choul Ohrr ² , Sun-Ha Jee ³ Department of Public Health,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¹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and Public Health, College of Medicine, Yonsei University ² ,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³ | | | |
| 분야 | 역학 [기타] | 발표자 | 김태욱 [일반회원] | 발표형식 | 포스터 |
| 진행상황 | 연구완료 | | | | |
| <p>1. 목적</p> <p>정부의 금연 관련 시책이 금연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어 범국가적인 금연 정책을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현 지방 자치제 하에서 전국 지역별 각 관청에서 실시되고 있는 금연 프로그램의 현황 파악 및 향후 실시하고자 하는 금연 프로그램을 조사하고, 금연 프로그램과 관련한 지원 요구 사항을 통해 금연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한 전국 관청에 대한 지원 계획 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였다.</p> <p>2. 방법</p> <p>본 연구는 전국의 관청을 대상으로, 특별시·광역시청을 포함한 시청 및 도청, 군청, 구청 총 248 개 관청을 발송 대상으로 하였다. 단, 구청의 경우 특별시·광역시 내의 구청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외 21 개 구청은 제외하였다. 설문조사는 전국 각 관청의 총무 책임자가 해당 관청을 대표하여 설문조사에 응답하는 것으로써 발송 및 회수 기간은 2000년 11월 23일에서 12월 23일까지 실시하였다.</p> <p>3. 결과</p> <p>전국의 248 개 관청을 대상으로 금연 프로그램 실시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설문지가 회수된 159 개 관청 중 분석에 사용된 154 개 관청의 22%인 34 개 관청에서 현재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 중인 34 개 관청에 대해서 광역시청·시청·도청·군청·구청 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금연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하여 각 청별 구분에 따라 실시 여부에 있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청의 실시 비율은 매우 높았으며 군청의 실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금연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한 시기와 관련해서는 1999년에 금연 프로그램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는 응답이 44%로 가장 많았으며 1996년부터 1998년 사이였다는 응답이 41%를 차지했다. 여기서 금연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한 시기에 있어서 1995년 건강증진법 제정 이후 건강 증진과 관련한 많은 활동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오히려 1999년 이후의 비율이 더 많이 차지하였다. 금연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한 시기에 대해서 각 청별로 살펴본 결과, 광역시청의 경우는 1996년-1998년 사이에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고 응답하였고, 시청의 경우 1996년-1998년 사이에 금연 프로그램을 처음 실시했다는 응답률이 타시기보다 높았으며 도청과 군청에서는 1999년 이후에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부분에서 전반적인 공무원들의 반응은 보통인 경우가 61.8%로</p> | | | | | |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냈으며 그 외 호의적인 경우도 20.6%있었으나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매우 비호의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볼 때 공무원 대상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서 비호의적이지도 않으나 호의적이지도 않고 '보통'이라는 응답은 결국 효과면이나 흥미면에서 금연 프로그램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실시 중인 금연 프로그램 사업 효과를 평가하고 있는지 여부와 평가중인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지 않고 있는 비율이 67.7%였으며 사업 효과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주로 금연 프로그램 실시 전·후의 흡연율이나 공무원들의 참여율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 응답자가 관청내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내리는 평가는 '보통'인 경우가 47.1%로 제일 많았으며 미흡하다는 의견이 35.3%였다. 매우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내린 경우는 없었다. 또 매우 미흡하다는 의견도 8.8%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면 총무담당자는 청내 실시 중인 금연 프로그램에 대해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 프로그램을 실시하는데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은 공무원들의 호응 부족이었으며 그 다음으로 담당 인력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금연에 대한 인식은 금연이 극히 개인적인 문제이므로 강제적인 개입은 삼가해야 한다는 입장과 금연은 개인만의 문제가 아닌 주변인에게 해를 미치는 행동이므로 규제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서로 상반된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실제 금연 프로그램의 대상자는 흡연자이기 때문에 흡연이 개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흡연자들의 인식 전환이 되지 않는 한 금연 프로그램의 효과성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금연 프로그램 실시와 관련하여 강제적인 금연 행동 유도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를 촉발시키며 실제적으로 금연을 도울 수 있는 지원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고찰

국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현황 분석 및 현실태를 토대로 한 본 연구의 금연 프로그램 개선 방안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연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전문가에 의해 구성되고 실행되는 각종 금연 강좌, 홍보, 환경 조성, 금연 상담 및 정보 제공 등 적극적이고도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고 이를 위한 기관장의 금연 의지 노력도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금연 프로그램 실시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인 금연성공을 파악 등을 통한 교육 평가 실시 방안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공무원 금연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정부의 재정적 지원과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금연 운동과 같은 포괄적이고 보다 강력한 흡연 규제 방침이 필요하다.

넷째, 담배세 문제와 관련한 재정적 측면의 정부의 실질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본 연구결과 건강측면외에 지방 자치제에 따른 재정적 측면의 문제가 부각되었는데 실제적으로 지방 자치제 이후 담배세가 지방세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 재정에서의 담배소비세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따라서 담배 소비는 바로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 충원을 의미하게 되기 때문에 각 지방 관청이 솔선하여 청내 공무원은 물론 지역사회의 금연 활동을 지원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관청 내의 금연 프로그램을 통한 금연 유도를 위해서는 정부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의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흡연자들은 금연이 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청내 전반적인 금연 분위기 조성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담배소비세로 인한 재정 문제는 관청은 물론 해당 지역의 금연 유도를 위한 관청의 적극적 활동을 저해하는 장애 요소가 될 것이므로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